

생물 세계의 숨겨진 비밀

쥐·뱀·거미·개미 등 단일개체 집중조명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생물은 경쟁 또는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오만한 인간은 경쟁과 공생의 원리를 무시하고 온갖 가학을 자행한다. 대표적인 피해 생물은 쥐·뱀·거미·개미 등 최근 단일 생물의 숨겨진 비밀을 집중 조명한 몇권의 저작은 인간과 생물의 상생(相生)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만물의 영위 조건을 생각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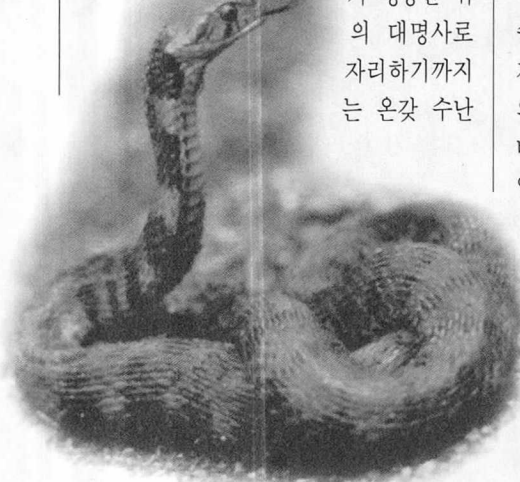
최근 인간의 미숙한 정자를 쥐의 정소에서 배양하는 불임시술로 '쥐 아기'가 태어나는 사건이 있었다. '쥐 아기'의 탄생은 생명공학의 개가입에 틀림없다. 쥐의 몸에서 인간이 배양된 것 자체가 충격이다. 그러나 어느 동물보다도 인간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생물이 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무턱대고 쥐를 혐오 대상으로 여긴 인간 스스로 '자기 파괴적 징후'를 보여 준 셈이다.

생물 학대는 인간의 자기 파괴적 징후

이탈리아 재난관리국 고위 공무원인 프란체스코 산토안니의 《쥐와 인간》(이현경 옮김, 시유시)은 인간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살아온 쥐의 면면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쥐의 생물학적 생태현황을 비롯해 쥐와 인간의 험난한 동거의 역사, 그리고 쥐를 이용한 산업적 측면까지 살피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쥐는 '미키마우스' 일 것이다. 그러나 미키마우스가 성공한 쥐의 대명사로 자리하기까지는 온갖 수난

검은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유혈목이.



을 당해야 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둑의 대명사로 여긴 쥐에 대한 인간의 가학은 처절했다. 쥐를 박멸하기 위해 사냥꾼이 동원되고, 청산가리·독가스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가 하면 살아 있는 쥐를 불에 태우는 축제도 벌어졌다. 특히 중세시대 '페스트'를 전파하는 매개체로 낙인찍혀 처참한 수난을 당했다. 그러나 쥐는 여전히 왕성한 번식력으로 인간의 주변을 지키고 있다.

쥐가 항상 멸시의 대상이 된 것만도 아니다.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부의 상징'이 되어 신성한 영물로 숭배되기도 했다. 또한 태평양의 한 섬에서 4년에 걸친 핵실험으로 풀 한포기 살아남지 못한 곳에서도 살아남은 쥐의 질긴 생명력은 인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12시간지 가운데 먼저 쥐가 올라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에는 쥐의 모피를 이용한 산업이 발달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쥐에 대한 인간의 혐오는 여전하다. 저자는 완전 피조물 쥐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인과 자연 사이의 회복하기 힘든 분열을 이해하고... 인간의 역사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알면 사랑할 자연의 파수꾼

쥐만큼이나 멸시받은 생물은 뱀이다. 뱀은 사악한 생물의 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 한국 뱀박사 1호인 백남극씨와 심재한 연구원(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은 "지구의 파수꾼으로 자연생태계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뱀에 대한 배려를 인간 스스로 살아갈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역설한다.

그들은 저작 《뱀》(지성사)을 통해 뱀과 관련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수한 몸의 형태와 구조, 행동, 생식 등 전반적인 뱀의 생태적 특성을 설명하고,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살모사' 등 근거 없는 이야기의 실체를 규명한다. 뱀에 관련된 신화와 전

설 등 다양한 궁금증도 풀어준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서식처 파괴,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먹이 파괴, 그리고 몬도가네식 보신 문화로 인한 남획으로 뱀의 수요가 점점 줄어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이밖에 인간과 뱀이 상생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거미줄로 옷을 지을 수 있을까. 답은 첨단 섬유소재로 만든 갑옷보다 더한 방탄복까지



호랑거미를 이용한 한 의류회사의 광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미줄로 옷을 한벌 지으려면 5천 마리 이상의 거미가 평생 만들어내는 거미줄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에서 거미줄을 만드는 유전자를 누에에 옮기고 목화의 세포 속에 이식하려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거미줄을 광학기계의 눈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거미

자체를 독극물을

검출하는 데 이

용하기도 한

다. 자연농법

에서도 거미

의 존재는 유

용하다. 또한 피

임약, 두통·치

통·천연두·페스트·문둥병·치통 등을 치료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이로운 거미는 여전히 혐오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특히 독거미에 대한 공포는 가학의 대상으로 추락시켰다.

건국대 임문순 교수와 중부대 김승태 교수가 지은 《거미의 세계》(다락원)는 거미의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과 정보를 제공한다. 인간처럼 오감을 느끼는 구조적 특성, 세상 살이, 신화와 미신 또는 문학에 등장하는 이



히로니무스 보슈의 《유혹의 3부작》. 목판에 그린 유화로 리스본 국립고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야기, 천적, 그리고 거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버 공간 등을 소개한다. 부록편에는 한반도에서 생존하는 거미의 특성을 담았다.

서울대 최재천 교수의 《개미제국의 발견》(사이언스북스)은 지하 세계에 왕국을 건설한 개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인간처럼 군집생활을 하는 개미의 특성을 모두 살피고 이들의 경제구조, 사회 및 문화, 정치 체계에 관한 이야기까지 설파한다. 최교수는 "현대인과 가장 비슷한 생활구조를 갖고 있는 동물"로 소개한다.

오천만년 전통의 농사꾼 개미. 그들은 조직화된 사회체계를 바탕으로 고도의 분업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인간도 경외할 정도의 구조를 지닌 왕국을 건설해 지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개미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영위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생물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개미에게도 천적은 있다. 새와 거미 같은 포식동물, 끈끈이주걱과 파리지옥 같은 식충 식물, 그리고 기생충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개미에게 공포의 대상은 인간이다. 최교수는 "알면 사랑한다"는 말로 자연의 파수꾼 개미의 소중함을 역설한다. 개미가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인간이 살아갈 공간이기 때문이다.

—오완진 기자